



변영식

고문

TEL 02-316-4308
FAX 02-756-6226
E-MAIL ysbyun@shinkim.com

변영식 고문은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안센에서 16년,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10년 동안 약가업무를 담당해왔으며, 이어서 법무법인(유) 광장 및 김·장 법률사무소에서 5년간 보험약가 관련 업무를 자문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

25년간의 약가업무 및 자문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신약등재 및 약가협상 경험이 있으며, 경제성평가(Pharmaco-economic study)를 통한 신약등재뿐만 아니라 특히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의 등재에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의 보험 등재를 위하여 2014년 새로운 약가등재제도인 위험분담제도(RSA)의 도입에 기여를 하였고, 2015년에는 현행 선별등재제도의 근간인 경제성평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성평가특례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업계를 대표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

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KRPIA(글로벌의약품협회) Market Access committee 의장을 역임하면서 다국적제약사를 대표하여 정부 및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약의 혁신가치 인정 및 접근성 개선에 공헌해왔으며, 2015년부터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(Korea Cancer Care Alliance/KCCA)의 발족 및 활동을 위한 실무TF member로서 활약하여 암환자의 적절한 치료기회 제공 및 암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.

경력

2023-현재	법무법인(유) 세종 고문
2020-2023	김·장 법률사무소
2018-2020	법무법인(유) 광장 수석전문위원
2016-2018	글로벌의약품협회(KRPIA) MA committee Co-chair
2009-2018	한국아스트라제네카(주) P&R/GA Director
1994-2009	(주)한국안센

주요 업무 실적

약가제도개선

- 국내개발신약을 위한 글로벌혁신신약 평가기준 TF 리드/한국제약바이오협회(KPBMA) 협력
- 보건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 참가
- KRPIA TF 및 Working group 참가 및 리드
 - KRPIA Oncology Working group(항암제위원회)
 - Korea Cancer Care Alliance(KCCA-한국암정복협력단) 참가/2015-2018
 - 보건복지부 약가관련규정 정비 TF 참가/2015
 - 경제성평가특례제도 TF 리드/2014-2015
 - 위험분담제(Risk Sharing Agreement) TF 참가/2015-2016
 - A7 조정가산식 개선연구팀 참가/2015-2016
 - OECD project/신약 약가수비교 프로젝트 리드(OECD 가격 vs, Korea)
- Government Affairs(대정부 업무 및 대외협력)
(국회정책토론회/약가제도 세미나 기획 및 개최)
 - 만성기도질환 수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/성일종의원(자유한국당) (2017)
 - 난소암 환자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/문정림의원(새누리당) (2015)
 - 위험분담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/문정림의원(새누리당) (2015)
 - 중국약가참조 리스크 대책을 위한 세미나
 - 위험분담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/정춘숙의원/더불어민주당 (2019)
 - 신약접근성 강화를 위한 총선 및 대선공약개발 프로젝트

신약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자문

- 천연물의약품 신약등재 (2023)
- 유방암치료제 신약등재 (2022)
- SMA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(2022)
- 간암치료제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(2019)
- 면역항암제 등재 (2019)
- 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 (2017)
- 난소암치료제 (2017)
-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(2015)
- 당뇨병치료제-SGLT-2 계열 first in class (2014)
- 항혈전제-급성심근경색 치료제 (2013)
- 관절염치료제 (2012)

학력

1994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(법학사)
1985 구로고등학교 졸업

언어

한국어, 영어

외부 활동

- Asia Business Law Journal – A comparison of healthtech regulatory issues in North Asia: Korea (February 2024)